



2025 문화다양성 가치혁신  
결과자료집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2025 문화다양성 가치혁신

# 결과자료집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2025 문화다양성 가치혁신

# 결과자료집

# 목차

---

<b>01</b>	<b>2025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b>	<b>04</b>
<b>02</b>	<b>모니터링단</b>	<b>08</b>
	① 워크숍	10
	② 모니터링 활동	15
	(1) 모니터링 축제리스트	16
	(2) 활동보고서	25
	③ 결과공유회	36
<b>03</b>	<b>문화다양성 체험단</b>	<b>48</b>
<b>04</b>	<b>문화다양성 독서토론</b>	<b>52</b>

---

01



2025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 1. 2025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 ✦ 문화다양성이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다양함이 공존되고자 하는 실천 및 정신이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문화를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과 삶의 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이자 실천의 방향을 의미한다. 문화다양성은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차이가 배제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전반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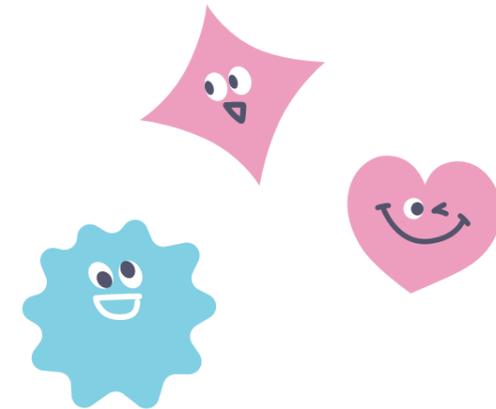
## ✦ 추진 배경

완주군은 귀촌·귀향 세대와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2024년 「완주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다양성을 경험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 목적

### ‘문화다양성’ 완주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완주에서, 문화다양성이 추상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 경험과 실천으로 자리잡도록 함. 군민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소통이 활성화되며,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확산됨. 궁극적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문화다양성이 지역 공동체의 가치로 뿌리내린 포용적 지역 문화 환경 조성



**02**

모니터링단

## 2. 모니터링단

### ✦ 모니터링단

2024년 11월 제정된 「완주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 완주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 모니터링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 모니터링단은 완주군 내에서 진행되는 축제 및 문화콘텐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각 현장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축제와 문화콘텐츠 안에 어떠한 문화다양성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각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드러난 문화다양성의 모습은 무엇인지, 칭찬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또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을 토대로 지역 축제의 문화다양성 현황을 이해하고, 향후 운영 기관이 이를 참고하여 축제 기획과 진행 과정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완주군의 문화다양성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하고자 한다.

#### - 활동 개요

- 활동명 : 문화다양성 모니터링단
- 활동기간 : 2025. 8. ~ 11.
- 참여자  
모니터링단

순	성명	활동 분야
1	김연순	지역문화, 환경
2	박진홍	문화예술, 교육
3	정정이	문화예술, 교육
4	오영란	지역문화, 교육
5	이승철	장애, 문화예술
6	임평화	장애, 문화예술
7	송기준	장애, 문화예술

#### ○ 활동내용

순	일시 및 장소	내용
1	2025. 9. 4.(목) 14:00 ~ 17:00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1차 워크숍
2	2025년 9월 11일(목) 14:00~17:00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2차 워크숍
3	2025년 9월 18일(목) 14:00~17:00 복합문화지구 누에 실마리 카페	3차 워크숍
4		모니터링단 1차 활동
5	단원별 일정·참여 축제 상이	모니터링단 2차 활동
6		모니터링단 3차 활동
7	2025년 11월 27일(목) 14:00~17:00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모니터링단 결과공유회



### ① 워크숍

#### 1-1 워크숍

- 주제: 「문화기획자로서 바라 본 문화다양성」 1차 워크숍
- 일시·장소: 2025. 9. 4.(목) 14:00~17:00,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 참여임원: 김연순, 박진홍, 이승수, 정정이, 오영란, 이승철, 임평화, 김언경, 송기준, 문화 재단 직원3 총 12명
- 강사: 전별(문화기획자)
- 목적: 문화다양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문화기획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사례 공유테이블



#### 1-2 워크숍

- 주제: 「문화로 배우고 예술로 잇다 : 마을에서 세계로 향한 문화다양성」 2차 워크숍
- 일시·장소: 2025. 9. 11.(목) 14:00~17:00,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 참여.임원: 김연순, 박진홍, 이승수, 정정이, 오영란, 이승철, 임평화, 김언경, 송기준, 문화 재단 직원3 총 12명
- 강사: 김수일(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 목적: 문화다양성을 마을과 지역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완주군 문화다양성 확산 및 실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테이블



1-3 워크숍

- 주제: 「문화다양성과 국악 가치의 확산」 3차 워크숍
- 일시·장소: 2025. 9. 18.(목) 14:00~17:00, 복합문화지구누에 실마리 카페
- 강사: 주재근(정효문화재단 대표)
- 참여임원: 김연순, 박진홍, 정정이, 오영란, 이승철, 임평화, 송기준, 문화재단 직원3 총 10명
- 목적: 국악과 문화다양성 사례를 통해 문화적 이해를 넓히고, 전통문화가 국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 사례발표 및 공유테이블



② 모니터링 활동

(1) 모니터링 축제리스트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 일시: 2025. 9. 26.(금) ~ 28.(일)
- 장소: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 주최/주관: 완주군 /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추진위원회
- 주요 프로그램: 체험, 로컬푸드 판매, 공연, 대회 등

전북문화도시박람회



- **일시:** 2025. 9. 26.(금) - 28.(일)
- **장소:**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문화도시상생협력네트워크,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도시익산, 치유문화도시고창, 전주문화재단
- **주요 프로그램:** 홍보관, 포럼, 체험, 공연 등

드라이브 인 페스타



- **일시:** 2025. 10. 17.(금) ~ 19.(일)
- **장소:** 완주 둔산공원 일원
- **주최/주관:** 지역문화진흥원,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선도산단 /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주요 프로그램:** 콘서트, 가요제, 푸드트럭, 플리마켓, 아트, 체험, 공연 등

치맥하삼레



- 일시: 2025. 10. 24.(금) ~ 25.(토)
- 장소: 삼레문화예술촌 일원
- 주최/주관: 완주문화재단, 완주DMO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우석대학교
- 주요 프로그램: 푸드코트, 플리마켓, 공연, 체험 등

삼삼호러 페스타



- 일시: 2025. 10. 25.(토) ~ 26.(일)
- 장소: 삼봉지구 너른마당 일원
- 주최/주관: 완주문화재단 / 완주문화선도산단, 문화가 있는 날
- 주요 프로그램: 공연, 체험, 푸드트럭, 강연, 콘테스트 등

권삼득 국악대제전



- **일시:** 2025. 11. 7.(금) ~ 9.(일)
- **장소:**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완주문화체육센터
- **주최/주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 **주요 프로그램:** 경연, 창극, 체험, 퍼포먼스 등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 경계를 넘다!



- **일시:** 2025. 11. 4.(화) ~ 16.(일)
- **장소:** 복합문화지구 누에 잔디광장
- **주최/주관:** 완주문화재단
- **협력:** 늘푸른그림호, 다매공동체, 마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은혜의 동산, 예수재활원, 완주군수어동역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랑협동조합, 완주군자원봉사센터
- **후원:** 완주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주요 프로그램:** 공연, 체험, 캠페인, 전시, 토크콘서트 등

제3회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 **일시:** 2025. 11. 8.(토) ~ 9.(일)
- **장소:** 전북도립미술관 야외광장 일원
- **주최/주관:** 완주군
- **주요 프로그램:** 공연, 체험, 캠페인, 푸드 등

별빛주막 : 소양점



- **일시:** 2025. 11. 15.(토)
- **장소:** 오성한옥마을 및 소양고택 일원
- **주최/주관:**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완주DMO
- **주요 프로그램:** 공연, 체험, 플리마켓, 푸드, 콘테스트 등

완주형 매드프라이드 시즌4



- 일시: 2025. 11. 19.(수) ~ 23.(일)
- 장소: 삼례문화예술촌
- 주최/주관: 문화공동체아리아리,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 주요 프로그램: 연극, 퍼레이드 등

(2) 활동 보고서

모니터링단이 축제 및 콘텐츠 현장을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8개 문항 구성과 선택형 문항 22개, 서술형 문항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대표 문항과 이유

1. 행사장 접근 및 이동 동선은 편리하였습니까?

- 모든 방문자가 불편 없이 행사장에 이동할 수 있는지 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정한 문항입니다.

2. 지역 특수성과 문화다양성의 연계를 고려하였나요?

- 완주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지역 특성과 문화다양성이 축제 콘텐츠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정한 문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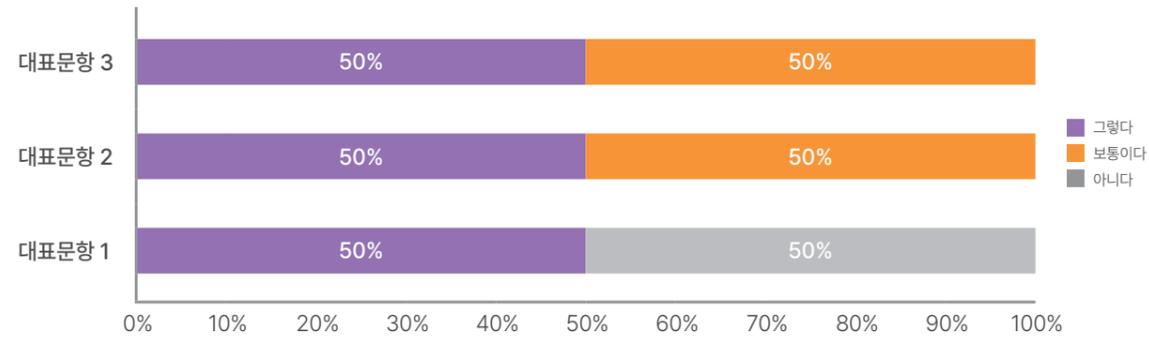
3. 이번 행사가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 계층, 문화적 배경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정한 문항입니다.



✦ 축제별 분석

1. 전북 문화도시박람회



✦ 문화다양성 보완점

- 행사장 동선이 다소 복잡하여 일부 관람객이 부스를 효율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움.
- 안내 표지판과 안내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혼선 발생 가능.
- 일부 콘텐츠는 특정 연령층이나 관심사에 맞춰져 있어, 다양한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필요.
- 부스 간 연계성 부족으로 전북 전체 문화 공동체라는 메시지 전달이 제한적일 수 있음.

✦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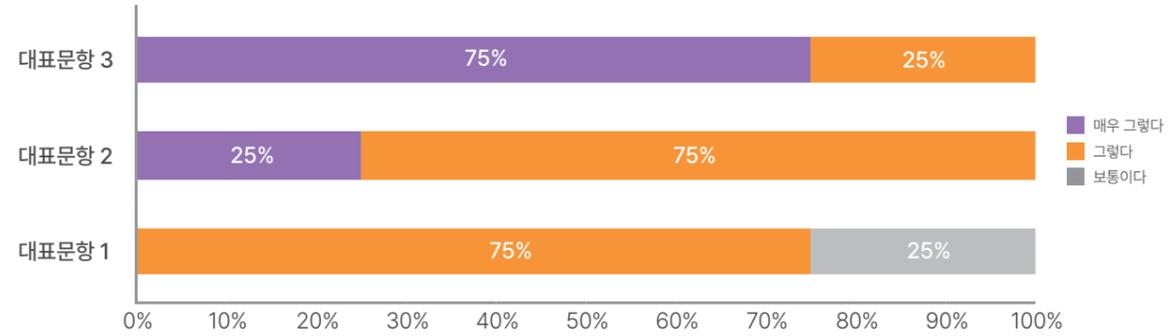
- 안내 표지판, 동선 안내판, 안내 인력 배치를 강화하여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
- 다양한 연령, 계층,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참여형 콘텐츠 강화.
- 부스 운영 간 도시 간 협력 및 공동 홍보관 마련으로 전북 문화의 통합적 메시지 강화.
- 사전 홍보 확대 및 현장 실시간 피드백 수집·반영 체계 구축.
-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다양한 관람객을 위한 편의 시설과 휴게 공간 확충.

✦ 종합 의견

- 2025 전북 문화도시박람회는 전북 각 도시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소개하며, 차이 속의 조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등 문화다양성 실천의 좋은 사례로 평가됨.
- 체험 중심 구성과 포용적 환경 조성은 관람객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포용적 문화 환경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앞으로는 지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도시 간 협력적 연대와 관람객 중심 설계, 지속 가능한 개선 노력을 통해 전북 문화도시 네트워크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 ※ 문화다양성 보완점

- 축제장 이동 과정에서 셔틀버스 이용과 관련한 현장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음.
- 행사장 전반의 동선과 이동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간이 있었음.
- 교통약자 및 고령자를 고려한 이동·주차 관련 정보 제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일부 프로그램은 특정 연령대나 가족 단위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연령의 참여가 제한적.
- 축제 공간의 바닥 및 이동 환경이 휠체어·유아차 이용자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음.
- 외부 방문객 및 다문화 참여자를 위한 다국어 안내가 아쉬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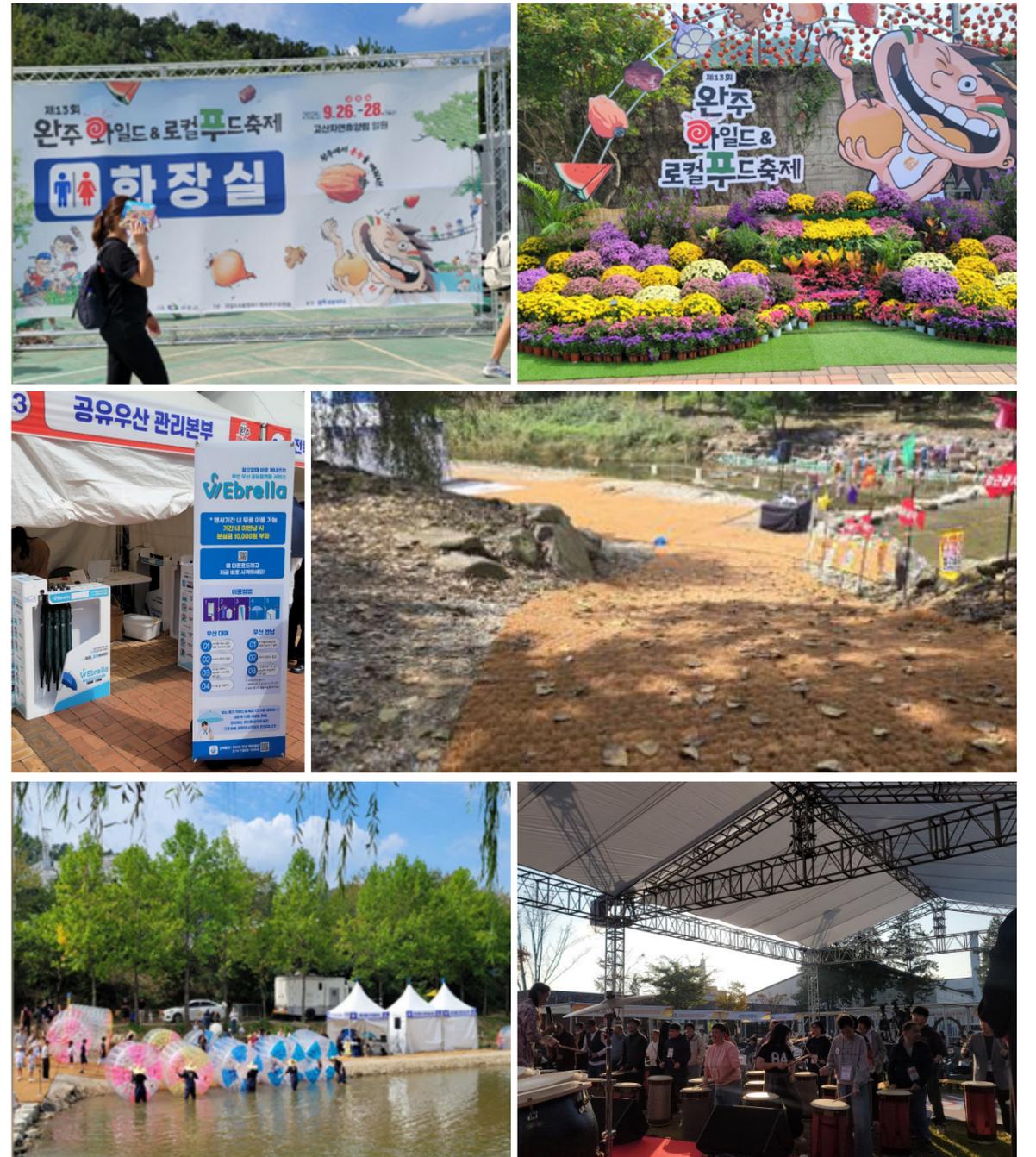
### ※ 개선 방안

- 셔틀버스 이용 구간을 포함한 축제장 접근 동선에 대해 안내 표지판, 동선 안내판, 안내 인력 배치를 보완하여 이동 편의성 제고.
- 교통약자, 고령자, 휠체어·유아차 이용자를 고려한 주차 정보 제공 및 이동 동선 정비를 통해 접근 환경 개선.
- 축제 공간 내 바닥 포장 상태와 이동 환경을 점검·개선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더운 날씨로 인한 체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먹거리 공간의 환기, 냉방, 휴식 공간 운영 방식 개선.
- 기후 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축제 시기 조정 방안을 검토하여 참여자의 체류 만족도 제고.
- 외부 방문객 및 다문화 참여자를 위한 다국어 안내 자료와 현장 정보 제공 체계 보완.
- 다양한 연령과 문화적 배경의 참여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험형·참여형 콘텐츠 구성 확대.
- 축제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 완주군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참여 방식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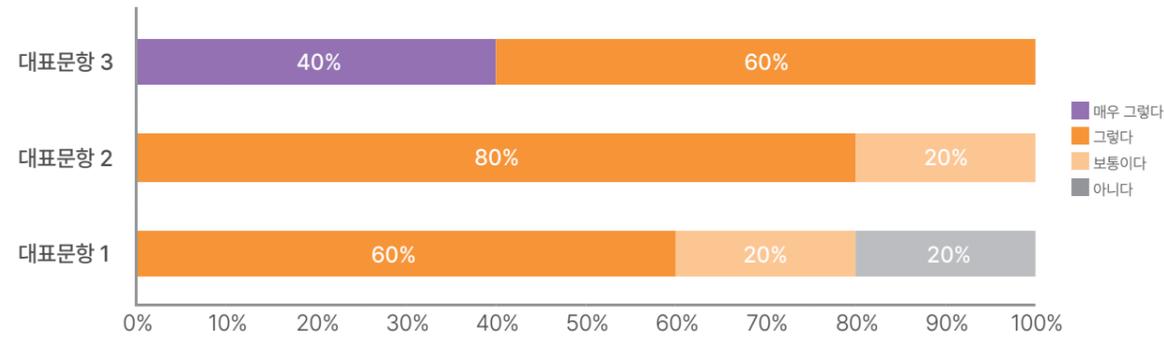
### ※ 종합 의견

- 우리 지역의 로컬 자원과 먹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완주 대표 축제.
- 행사장 곳곳에 계신 청소 인력과 깔끔하게 준비된 음식, 휠체어 대여 서비스 등 세심한 운영이 인상적임.

- 완주군 13개 읍면의 로컬 음식을 선보인 푸드존은 방문객이 지역 식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축제의 대표적인 매력 요소가 되었음.
- 행사 프로그램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 문화가 공존하면서 여러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
- 일부 교통과 안내 과정에서 참여자가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관찰되었으며, 축제 접근과 참여 방식 개선이 필요함.



### 3. 무장애예술축제 '서로'



#### ※ 문화다양성 보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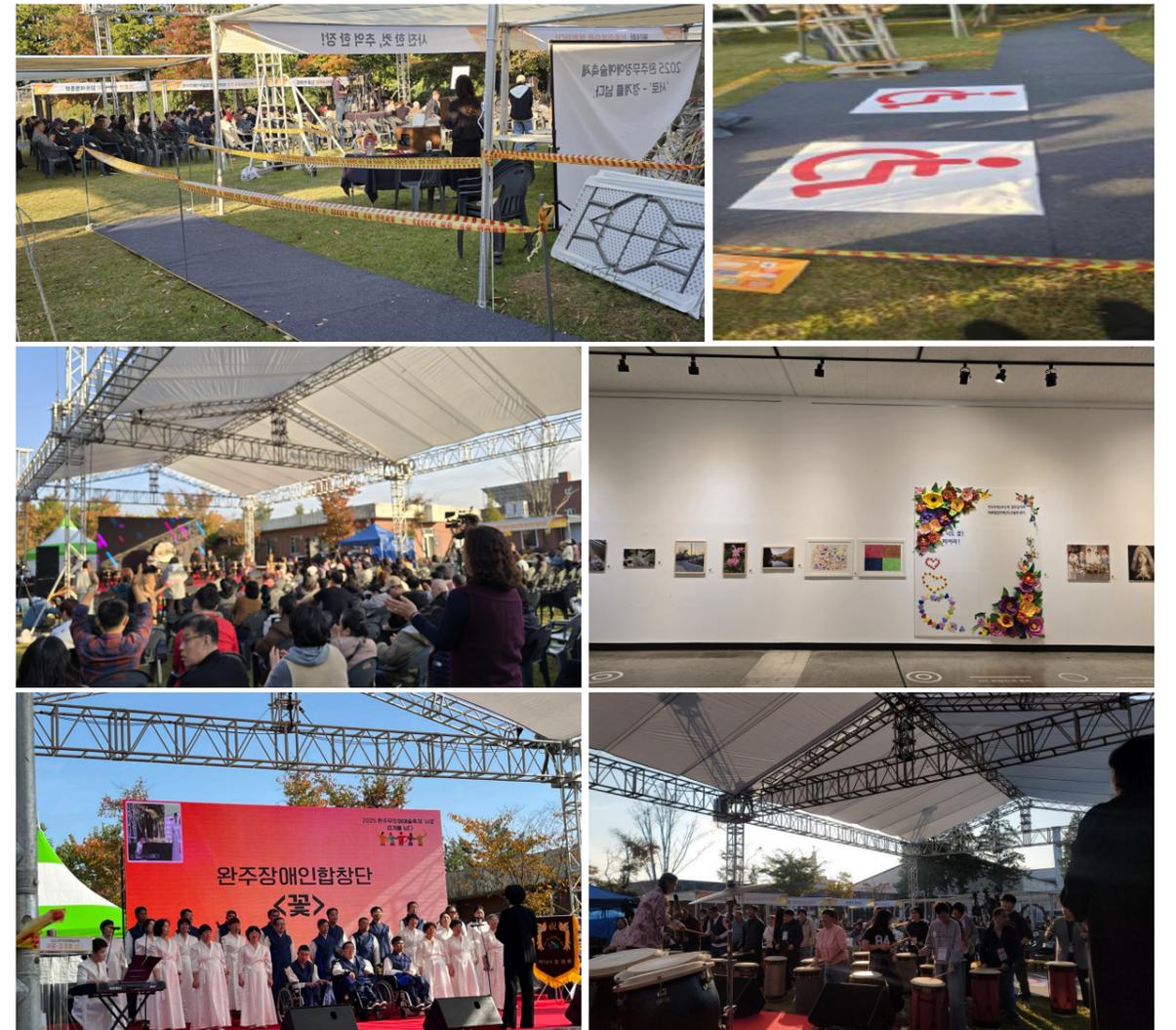
- '경계를 넘다'라는 부제와 달리, 전반적인 참여 양상이 장애인 중심으로 인식되어 비장애인의 참여는 다소 부족하게 느껴짐.
- 누에 아트홀 전시는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었으나, 축제 전반의 흐름이나 취지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요소는 부족하게 느껴짐.
- 장애가 없는 관람객도 무장애의 관점에서 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대·이어폰 등 체험 요소가 마련되었다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임.
- 행사장과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현장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지역 주민과 일반 방문객의 자연스러운 유입이 제한적으로 보임.
-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장소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비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에 제약이 있었음.

#### ※ 개선 방안

- 행사 전반의 취지와 프로그램 구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 내 행사 소개 자료, 진행 사진, 설명 안내물 보완.
- 안내 인력 배치 확대 및 행사장 전반의 위치·동선 안내 강화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이동과 관람이 수월하도록 개선.
-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바닥 상태 점검, 위험 요소 표시, 공간 확보 등 물리적 접근 환경 보완.
-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및 관객과의 소통 시간 강화.
-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시니어클럽, 요양시설 등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참여 대상층 확대.
- 홍보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 기관, 단체,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전 홍보 강화.
- 무장애예술축제의 특성을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감각 체험 요소 도입 검토.

#### ※ 종합 의견

- 무장애예술축제 '서로'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함께 즐기는 예술축제를 지향함.
- 전시, 공연, 체험 등 프로그램 구성과 무대 환경, 안전 요소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이 확인됨.
- 휠체어석 마련과 화장실 공간 확보, 점자 리플렛 제작, 작품 음성 QR코드, 무대 실시간 수화통역 등 접근성을 고려한 운영이 무장애 축제로서의 방향성을 보여줌.
- 참여 주체가 기관과 관계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지역 주민과 비장애인의 폭넓은 참여로까지 확장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접근성 개선,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축제로 발전할 여지가 큼.
- 참여 기관이 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이 되어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지속적인 시도와 보완을 통해, 무장애예술축제 '서로'가 완주군의 문화다양성을 상징하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임.



✦ 전체 분석

본 결과는 문화다양성 모니터링단 7명이 완주군내 11개 축제 및 콘텐츠에 대해 총 21건의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 평가 척도

응답	점수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아니다	2점
매우 아니다	1점

※ 결과 해석

점수	등급
4.0 이상	우수
3.5 ~ 3.9	양호
3.0 ~ 3.4	보통
3.0 미만	개선필요

※ 각 항목의 점수는 21건 응답의 평균값입니다.

※ 객관식 항목

구성	항목	점수
행사현황	홍보물 정보 안내	3.8
	접근성	3.9
	다양한 집단 참여 환경	3.8
콘텐츠 구성 분석	전체 구성 편성	3.9
	다양한 문화권 콘텐츠 포함	3
	다국어 안내	2.5
	문화 상업화	2.2
	시간 배분	3.5
	주제 명확성	4
	문화다양성	3.8
만족도	재참여 의향	4.3
	흥미로움	4
	취지 부합도	4.3
지역과 문화다양성	지역사회 연계	3.8
	완주군민 관심사 반영	3.4
	다양한 집단 참여 기회	3.3
	전통과 현대의 조화	3.2
	지속가능성	4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3.2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3.6

※ '문화 상업화' 항목은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입니다.

21건의 활동보고서 서술형 문항에는,

※ 지역 자원과 정체성

완주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일관되게 긍정 평가했다. “완주군 13개 읍면의 로컬 음식을 선보인 푸드존은 지역의 식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축제의 대표적인 매력 요소”, “완주를 알리는 캐리커처 컵 체험은 지역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면서도 참여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체험형 콘텐츠”라는 기록이 있었다.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전통음악의 가치와 지역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행사”,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장구 만들기, 부채 꾸미기, 한복 체험 등은 문화다양성의 실천적인 예”라는 평가가 있었다. 자연 자원에 대해서는 “모악산이라는 공간이 가진 자연적 웰니스의 잠재력은 분명 컸다. 숲의 밀도, 공기의 흐름, 참여자들이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고르는 모습은 축제가 의도한 치유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관찰이 있었다. 한 모니터링단은 “완주 작가들의 역량을 지역 내부에만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수도권·국제 교류로 확장하면, 완주 문화의 다양성과 경쟁력이 동시에 강화될 것. 이는 지역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전략”이라고 기록했다.

※ 접근성

접근성과 관련하여 축제별로 매우 다른 상황이 관찰되었다. 우수 사례로 “화장실 안내 표지판이 멀리서도 쉽게 식별될 만큼 크게 설치”, “장애인을 위한 전용 입구가 별도로 마련”, “휠체어 대여 서비스”, “점자 리플렛 제공”,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무대 설치”, “텐트형 돔 설치” 등이 기록되었다. 반면 “시간이 갈수록 주차 차량은 많아질텐데 여전히 주차난”, “푸드트럭의 배차로 장애인들이나 유아차 이용자들에게는 불편”, “많은 축제 참여 인원엔 비해 식당이 비좁았고, 더운 날씨엔 냉방기 가동 부족”, “진행 시간이 주로 야간에 진행되었다지만 밝기가 환하지 않아 다소 불편”이라는 지적이 여러 축제에서 나왔다. 한 모니터링단은 “교통 편의성, 안내 체계, 접근 동선 등은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참여자들이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다양성 실천의 기반이 된다”고 기록했다.

※ 참여자 구성

참여자 구성과 관련하여 축제별로 상이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광범위한 참여를 보인 경우: “참여하는 인원들이 전국에서 오고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축제에 참여하는 모습이 매년 볼 수 있다”,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화롭게 구성”, “남녀노소,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프로그램”, “전북의 각 도시가 지닌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보여준 훌륭한 자리”. 제한적 참여가 관찰된 경우: “주변 주민들

이 행사에 참여하진 못하셨을 것 같고 참여자의 기관과 가족분들이 주로 참여”, “공연이나 작품 전시에 참여하는 기관이 주를 이루었고, 본인들의 공연이나 전시 관람이 끝나면 돌아가는 부분도 아쉬웠다”, “지역 주민과의 연계가 조금 부족”.

특정 연령 편향: “콘텐츠 대부분이 특정 연령대에 호소력이 강해 다양한 연령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기에는 다소 편향성”.

### \* 운영

운영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텝들의 빠른 응대 돋보였고요”, “행사장 곳곳에는 청소 인력이 배치되어 쓰레기 정리와 환경 관리가 잘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인상”, “지역 농산물로 만든 음식들은 깔끔하고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공유우산 관리’ 프로그램은 환경문제를 고려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속가능한 축제 운영의 가능성”,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규모가 작은 행사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워”, “관리하는 스텝들이 적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 “첫날에는 주차 혼잡과 일정 미준수 등 운영상 아쉬움”, “비가 와서 마지막날의 경우 많이 붐비지는 않았고”가 지적되었다.

### \* 프로그램 다양성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더 많고 다양한 종류의 부스가 생겨났고, 실질적으로 축제에 참여한 이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로 축제의 풍성함”, “행사의 콘텐츠가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화롭게 구성된 점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잘 반영”,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물놀이 체험장도 호응이 높았다”, “체험 중심의 구성과 포용적 환경 조성은 문화다양성 실천의 좋은 사례”. 반면 “앞으로 장기적인 진행에 참여가 예상되나 장소의 이동과 참여 업체의 확대가 되어 다양성을 좀더 보여 주면 좋겠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창의적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 \* 시간에 따른 변화

축제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관찰은 다음과 같다.

오래 지속된 축제: “13회로 접어든 와주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는 이제 지역의 당당한 특색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해를 거듭할수록 완주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지고 완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분명함을 참여할 때마다 느낀다”, “매년 성장해왔고, 축제에 넉넉함으로 보여졌다”.

개선 사례: “작년 무장애 예술축제보다 올해 무장애 예술축제가 무대 환경, 체험 활동, 여러 기관들의 단합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보다 높은 질의 축제를 진행해준 것 같아 내심 뿌듯

하였다”, “여러 차례의 회의, 만남을 통하여 피드백을 전달받고 사소할 수 있는 휠체어석 마련, 화장실 공간 확보, 안내도 및 점자 리플렛, 굿즈 제작,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막 설치, 스텝 인력 확보 등이 너무 잘 되어있어서 놀랄 정도”.

### \* 미래에 대한 기대

모니터링단은 축제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대를 표현했다. “내년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축제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14회 축제는 더 넉넉하고 알찬 축제가 될 거라 생각한다”, “다음 축제가 또 기대가 된다”, “내년 매드프라이드축제 또한 기대가 된다”, “기대하기는 앞으로 우리 축제가 더 다양한 문화가 있고 지속적인 지역 축제이면서, 더 글로벌한 세계적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 “서로 행사는 지속가능성이 넘치는 행사로 내년에는 완주 군민들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서로 함께 참여하는 대행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협력 과정에 대한 신뢰도 표현되었다. “처음 추진단을 발족하여 모임을 갖을 때에는 과연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잘 준비가 되어 서로 축제를 열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다. 또한 문화재단 직원들이 바뀐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하실까 염려가 되었지만 행사 당일 감격의 시간이었다”, “함께 즐길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축제를 그려나갔다”.

### \* 종합의견 및 제안,

완주군 축제들은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에서 강점을 보이며, 회차를 거듭하면서 규모와 체계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 피드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개선한 사례도 확인되었고, 지역 사회는 축제의 지속과 발전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접근성 수준은 축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세심한 배려를 실행한 축제가 있는 반면, 주차, 동선, 편의시설 등에서 문제가 지적된 축제도 있었다. 참여자 구성도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낸 축제와 제한적 참여에 머문 축제로 나뉘었다. 기획 관점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축제에서 특정 관점의 편향성이나 의도와 실행의 간극이 지적되었다. 모니터링단은 청소년·이주민·노년층 참여 확대, 작가와 주민의 협업, 지역 마을 연계 프로젝트, 지역예술가 참여 확대, 장소 이동과 참여 업체 확대, 지역 간 문화교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 ✦ 모니터링단 결과공유회

#### ✦ 개요

일시 :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14시

장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시 짚는 강의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며 느낀 점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 ✦ 강의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다양성 완주」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고 모니터링단 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강의에서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과 불평등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제시되었으며, 모니터링단은 축제와 콘텐츠에서 경험한 불편 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은 문제를 인식하는 시민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 ✦ 진행

결과공유회에서는 문화다양성 모니터링단이 참여한 축제와 콘텐츠를 돌아보며, 각자의 활동에서 경험과 느낀 점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모니터링단은 참여했던 행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상황이나 현장에서 느꼈던 불편함, 인상 깊었던 점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소감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는 각자의 시각에서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모니터링 활동 전반을 되짚는 계기가 되었다.

#### ✦ 발표 정리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는 이동·대기·정보 접근 단계에서부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사례를 통해 언급되었다. 유아차나 휠체어 이용, 고령자나 건강상의 이유를 가진자의 참여자의 관점에서 축제 공간과 동선, 프로그램 참여가 어떻게 다르게 체감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공유되었다. 일부 축제에서는 이전보다 이동 동선이나 편의시설 안내가 개선되었다는 인식이 제시되는 한편, 행사 장소의 접근성, 셔틀 버스 운영 여부, 다언어 안내와 같은 요소가 여전히 참여의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이와 함께 축제의 내용이나 프로그램 구성 외에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정보를 어떻게 접하는가'와 같은 보다 구조적인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 ✦ 2026년 활동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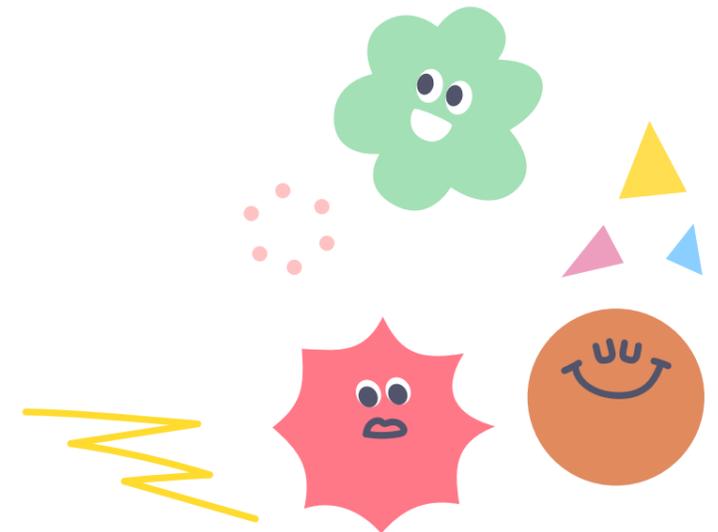
올해 모니터링단 활동을 돌아보며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첫째**,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 개념과 모니터링단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워크숍)의 보완

**둘째**, 활동 기간이 짧게 운영되면서 일정이 다소 촉박하게 느껴졌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활동 시기와 운영 일정에 대한 조정

**셋째**, 이번 모니터링 활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모니터링단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방식 마련

**마지막으로**, 더욱 다양한 문화다양성의 요소를 반영한 활동 계획



**03**

문화다양성  
체험단

### ✦ 문화다양성 체험단

2025년 완주문화재단은 완주군민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체험단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음식, 전통문화, 환경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체험형 활동을 구성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내 인식 확산을 도모하였다.

#### - 활동 개요

- 활동명 : 문화다양성 체험단
- 활동기간 : 2025. 10. ~ 11.
- 참여대상 : 문화다양성에 관심 있는 완주군민
- 참여인원 : 총 40명 - 1회차 10명 / 2회차 20명 / 3회차 10명
- 활동내용

순	일시 및 장소	내용
1	2025.10.31.(금) 11:00~13:30 완주가족문화교육원 조리배움터	음식으로 배우는 문화다양성 : 베트남 요리 실습
2	2025. 11. 7.(금)13:00~18:00 대한민국 슬테마박물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 향토술담그기
3	2025. 11. 14.(금) 14:00~16:30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환경과 문화다양성 : 손바느질 기초 수선

### 3-1 프로그램

음식과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베트남 출신 문화교육자 이선화 강사가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고, 직접 분짜를 조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완성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음식을 통해 베트남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하였다. 체험단은 음식 속에 담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문화다양성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3-2 프로그램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강주 대표 이철수 강사가 전통주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소개하고, 직접 이강주를 담그는 실습을 하고 강의를 통해 세계 각국의 술 문화와 지역 정체성을 비교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박미란 해설사와 함께 박물관을 관람하였다. 체험단은 전통주 체험과 박물관 관람을 통해 전통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몸으로 느끼며, 완주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새롭게 인식하였다.



### 3-3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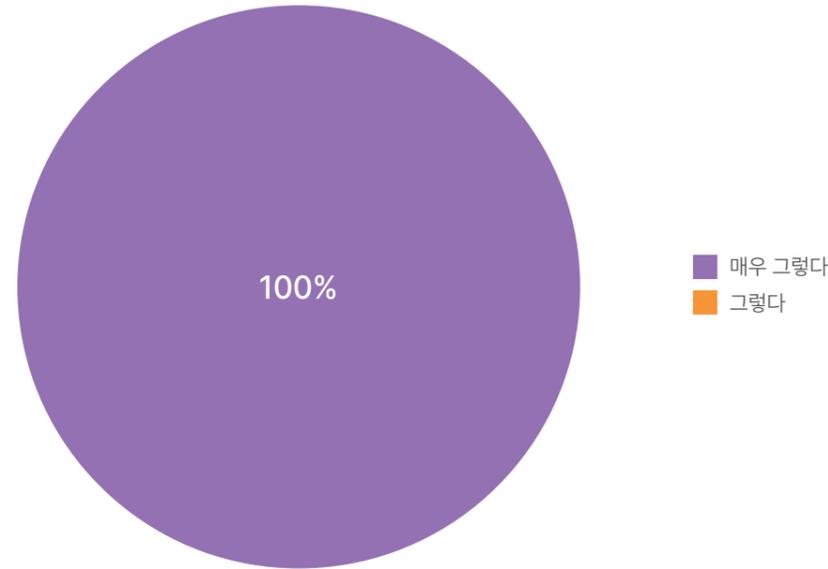
환경과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환경교육자 김민정 강사가 환경과 의류 수선의 관계를 소개하고, 체험단이 각자 가져온 의류에 수선 또는 자수를 더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였다. 체험단은 의류 수선을 통해 자신만의 표현을 하고,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문화다양성을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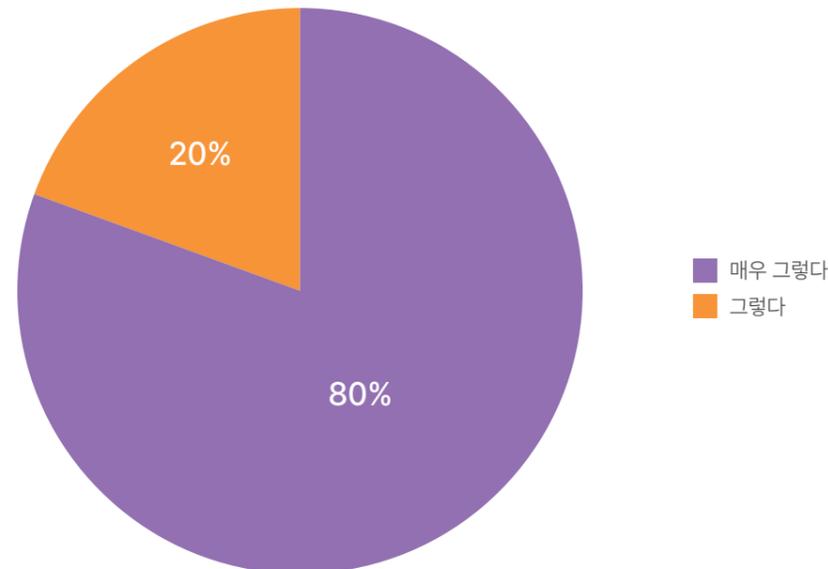
✦ 만족도 결과

2025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체험단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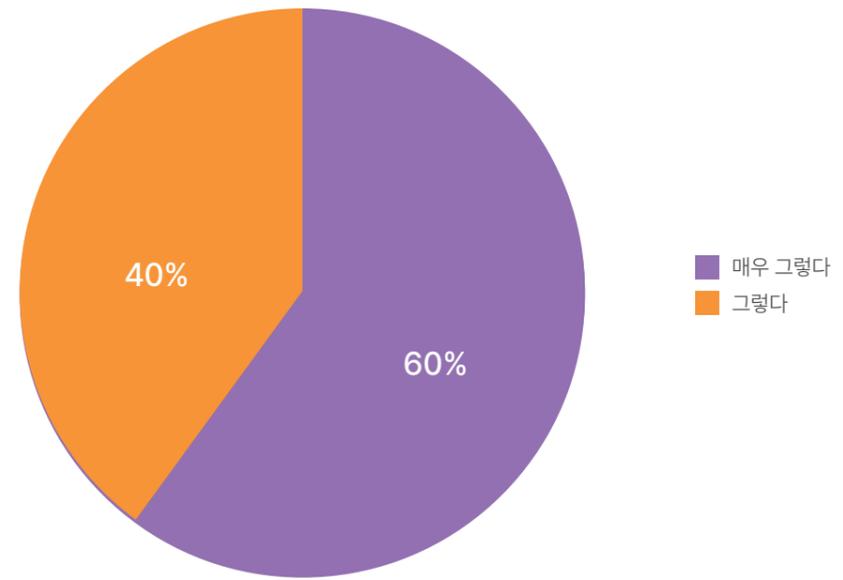
-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만족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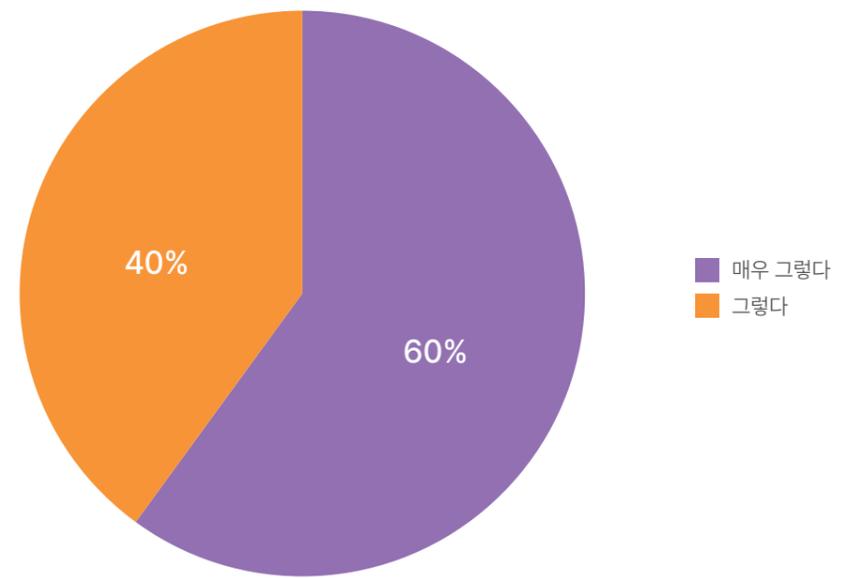
- 프로그램 내용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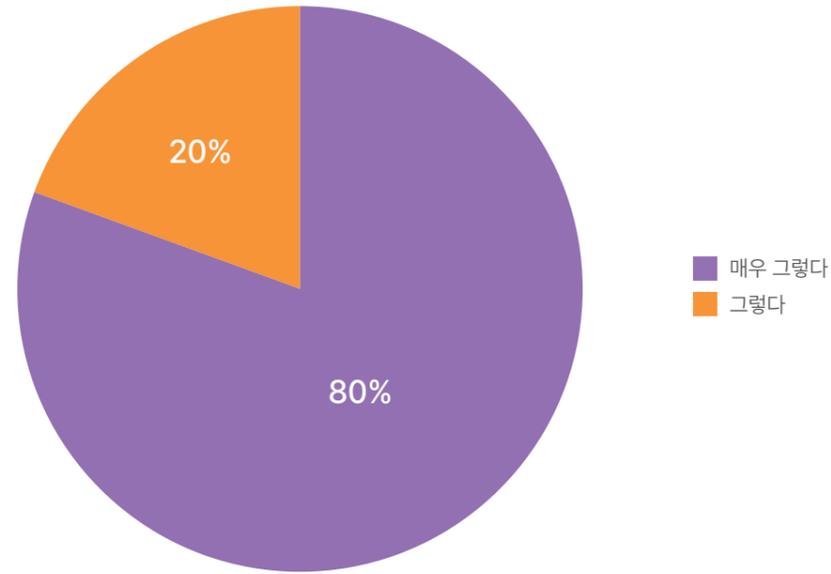
-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 프로그램이 일상 속에서 문화다양성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 프로그램 진행 방식과 운영(진행자, 안내, 시간 등)은 적절하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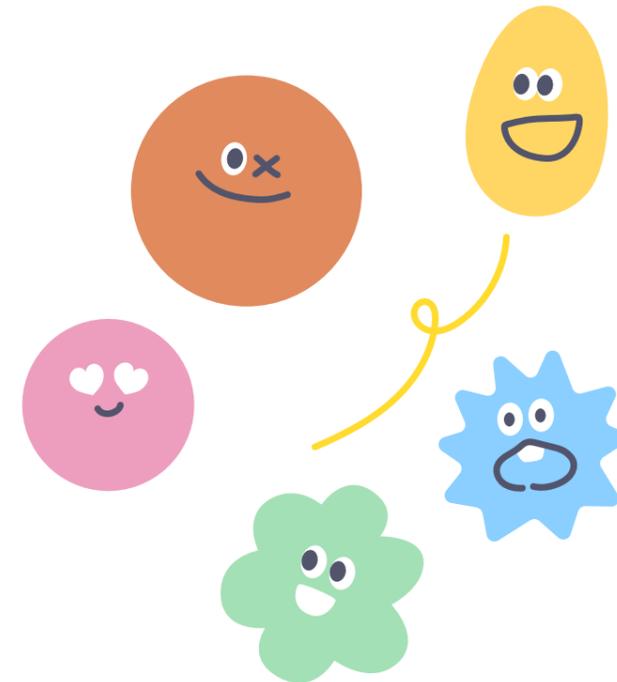


※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의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수 응답자는 프로그램이 문화다양성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진행과 안내가 원활했으며, 프로그램 분위기가 참여하기에 편안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다만 회차와 시간이 짧아 더 심화된 체험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내년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내년도에도 다양한 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단회성보다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제안된 내용은 지속가능한 문화와 환경, 사라져가는 지역문화, 로컬 자원을 활용한 전통 음식 체험, 세계문화 이해, 다양한 주제 개발과 같은 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나타났다.



**04**

문화다양성  
독서토론

### 4. 문화다양성 독서토론

#### ✦ 문화다양성 독서토론

##### - 활동 개요

- 활동명 : 문화다양성 어린이 독서토론 [나와 너]
- 활동일시 : 2025. 12. 6.(토) 14:00 완주군립중앙도서관 문화강좌실
- 참여대상 : 3 ~ 5학년 초등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독서토론 활동으로, 그림책을 매개로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을 존중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운영되었다.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접하는 감정과 생각을 바탕으로, '다름'이 틀림이 아닌 다양한 모습 중 하나임을 체험을 통해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림책 교육가 김은혜 선생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작 단계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사람마다 생각·성격·관심사가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이후 레오 리오니의 그림책 「파랑이와 노랑이」를 함께 읽으며,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 새로운 모습이 되는 이야기를 통해 '다름이 만나 만들어지는 변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책 읽기 후에는 종이를 활용한 표현 활동을 진행하였다. 색, 형태, 표현 방식에 대한 제한이나 규칙을 두지 않고 각자가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완성된 작품을 돌아가며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표현이 모두 다를 수 있음을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타인의 표현을 평가하거나 비교하기보다, 각자의 선택과 표현을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였다. 이후 2025 문화다양성 주간 추천 도서인 「프레드릭」 그림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속 주인공 프레드릭이 가진 역할과 선택을 중심으로 토론 활동을 진행하였다. 토론은 △프레드릭은 다른 쥐들과 어떤 점이 달랐는지 △우리 주변의 '프레드릭 같은 사람'은 누구인지 △나에게 있는 프레드릭 같은 재능은 무엇인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지 등 총 4개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어린이들은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고, 말로 표현하며 서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내가 프레드릭이라면 겨울 동안 무엇을 모을까'를 주제로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창작 활동을 진행하였다. 잡지 속 이미지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각자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며, 서로 다른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양한 생각과 표현이 모여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었다. 이번 독서토론 프로그램은 책 읽기, 토론, 미술 활동을 단계적으로 연결하여, 어린이들이 문화다양성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과정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우리 주변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25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개선방안 및 향후추진방안

### ✦ 개선방안

#### 1. 프로그램 간 연계성 강화

독서토론, 모니터링단 등 개별 프로그램이 각각 운영되면서 참여자 간 교류나 사업 간 시너지가 제한적이었음  
향후에는 프로그램 간 연결고리를 마련하여, 하나의 활동이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 필요

#### 2. 참여 대상 확대

올해 프로그램 참여자는 문화다양성에 이미 관심 있는 일부 군민에 한정된 경향 보다 다양한 세대, 배경, 지역의 군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형태와 홍보 방식 다각화 필요

#### 3. 지역사회 확산 방안 모색

프로그램 참여자 개인의 인식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4.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

단년도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가치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사업 설계 필요 및 활동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 향후 추진방안

#### 1. 단계별 프로그램 설계

문화다양성 인식 → 이해 → 실천 → 확산의 단계별 프로그램 구성 초기 참여자가 심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경로 마련

#### 2.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개발

군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확대, 생활권 안에서 문화다양성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3.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문화다양성 관련 기관, 단체, 활동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기관, 사회복지 시설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4. 참여자 중심 활동 모델 개발

일방향 교육·체험이 아닌,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방식 도입으로 자발적 활동 모델 마련

#### 5. 지역사회 인식 확산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 홍보 강화로 문화다양성 가치가 지역 축제, 행사, 일상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환경 조성

## 2025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결과자료집

**발행인:** 완주문화재단 이사장 유희태

**발행처:** (재)완주문화재단

**발행일:** 2025.12

**총괄:**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 정철우

**총괄운영:** 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국장 이재정

**기획:** 완주문화재단 문화가치확산팀

**모니터링단:** 김연순, 박진홍, 정정이, 오영란, 이승철, 임평화, 송기준

**디자인:** 디자인숲

**주소:**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연락처:** 063-262-3955

**홈페이지:** <http://www.wfac.or.kr>

© 완주문화재단

본 책에 실린 글과 사진, 이미지는 저작권자와 (재)완주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